

장흥, 역대 부농 전년 대비 28% '깡충'

관내 1억 이상 고소득인구수 2017년 '217명' → 2018년 '278명' 늘어 축산분야 종사 농가 64% 가장 높아...벼·가공·유통·임업 분야 뒤이어

2018년 장흥군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농가의 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한 278농가로 집계됐다. 장흥군은 2017년 217명을 기록한 1억원 이상 고소득농가가 2018년 278명까지 숫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경영 유형별로 볼 때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농가가 64%(17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벼, 가공·유통, 임업 분야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278명 중 50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48명)와 30대(22명) 젊은 농사꾼의 수도 적지 않았다. 전체의 50%가 넘는 149명이 1억원에서 1.5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렸으며, 3억원 이상 13명, 5억원 이상을 기록한 농가도 8곳이나 됐다. 장흥군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2014년 151명에서 매년 10~15%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 28%의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민선7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농가 소득 2배 운동'을 추진하며 군민 행복 향상을 도모해 왔다. 유기농 중심 인증품목을 다양화 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 단계에 발자취를 내딛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꾸준히 확대해 2018년에는 전년(2천615ha)보다 11.7% 증가한 2천922ha의 인증면적을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은 장흥군은 지

난달 27일 '2018년 전남도 친환경농업 평가' 대상에 차지하는 영예도 안았다. 장흥군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작물의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 등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앞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속도를 더해 농업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가공 및 유통 지원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장흥군 보건소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산전·산후 우울 검사'를 추진한다.

장성, 임산부 산후 우울증 검사 무료검진 이달부터 다문화가정·취약계층 산모가정에 직접 방문

장성군 보건소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산전·산후 우울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산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산부의 14~23%가 임신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 우울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장성군 보건소는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울증 척도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한다. 보건소는 유축기 대어, 임산부 건강교실 등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들에게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마을의 다문화가정·취약계층 산모를 직접 찾아가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산모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산후 우울증은 산후라는 명칭 때문에 출산 이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울증상은 임신 말기에 가장 흔하고, 출산 전후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우울감·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와 뱃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의 우울증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조미숙 보건소장은 "임산부들의 우울증을 예방해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혁신형 지방정부 구현 위한 담양, 지방분권 특강 개최

담양군은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혁신형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 7기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2019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강령원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의 설명에 이어 최형식 군수의 자치분권 정책동향에 대한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최형식 군수는 특강을 통해 현 정부의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자치분권 중장기계획 비전에 따라 지방과 중앙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자체 지방 자주재원을 늘리는 등 재정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지역 발전의 역동적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인문정신과 융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에는 각종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는 절차가 중요시 되어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형식 군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는 지방분권 전략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편안을 논의하는 등 지방분권 시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st1@



나주시는 최근 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행복을 담은 손수레' 전달식을 갖고,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위한 손수레 15대와 겨울철 대비 방한복, 안전조끼 등을 지원했다.

나주, 폐지 수거 어르신에 특수 손수레 지원

방한복·안전조끼 전달... 무료건강검진도 실시

나주시는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특수 제작된 손수레를 무상 지원한다. 시는 최근 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행복을 담은 손수레' 전달식을 갖고,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위한 손수레 15대와 겨울철 대비 방한복, 안전조끼 등을 지원했다. 또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이날 끝말도 검사 등 총 33개 항목

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전달식에는 강인규 시장, 김선용 시의회의장, 시의원, 어르신, 보건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복을 담은 손수레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기존 목조와 무거운 철제로 이뤄진 손수레가 아닌,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돼 내구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강인규 시장은 "폐지 수거 어르신들은 생계의 목적도 있지만, 쾌적한 거리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며, "행복을 담은 손수레가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는 폐지 수거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은 물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영광, 드론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기 교육생 모집

영광군은 취·창업 연계형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드론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2기 교육생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2기 교육은 취·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군민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해 4주간 매일 8시간씩 이론 및 시뮬레이터 교육, 비행 및 정비 교육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수강생 중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 드론 전문교과 양성과정을 운영해 융·복합형 신규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증 과정은 기초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120시간으로



구성되며 전문 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심화과정 320시간을 더 이수하면 된다. 군에서는 교육수료생에게 취·창업 연계형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만큼 드론관련 기업, 영광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드론 교육기관, 방과 후 강사, 체험장 운영인력 등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